

한라시론



김장한 전 광주우총총장·한국외교협회이사

초고령화 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아름다운 마을에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일생을 통한 바람이 아닌가 한다. 일생을 지혜롭게 모범적으로 살아온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이 들면서 그간 소홀히 해왔던 이웃, 사회, 그리고 나라를 위해 각자 갖고 있는 재능에 따른 봉사활동을 병행하며 공부하고 사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한다.

직한지를 뒤돌아볼 여유조차 없었던지도 모른다. 그리고 과거에 비해 경제발전이 힘입어 대체적으로 생활이 윤택해지기는 했지만 그들의 자녀들은 고생시키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각오 때문에 삶의 의미와 질에 대해서는 등한시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점들이 각 개인의 불찰이 라기보다 역사적 재난들을 겪어 나 오면서 대부분이 겪어야 했던 어쩔 수 없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소모되더라도 다음 세대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바람직한 좌표와 방향을 보다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 주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세상은 전 세계적으로 큰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지만 그간 인류가 축적해온 유용한 지혜와 방법을 어릴 때부터

배워나갈 수 있도록 각기 가정과 사회일원에서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랫동안 역사의 질곡 속에서 굴절된 사회적 왜곡 현상을 바로잡는 일도 껴 있는 기성세대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기 전에 해야 할 과제의 하나일 것이다. 인간의 삶이란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무수히 많은 상황에 직면하고 때로는 거친 파도를 스스로 헤쳐 나가는 것이다.

아울러 인간의 삶에서 사랑이 중요하다. 그것을 자녀들이 가정생활에서부터 습득하게 하고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체득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지나친 경쟁 속에서 편협하게 성장해 이웃과 자연스러운 어울림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면 건강한 사회일원이 되기 어렵고, 역지를 일상화함으로써 사회에 큰 부담이 되거나 자포자기해 스스로 자멸의 길을 선택해 이웃과 사회에도 큰 부담이 된다.

나이 든 분들이 늘 앞장서서 자신을 성찰하고 스스로 아름다운 노후를 가꾸어 나가는 모습이 되어 초고령화 사회로 가는 길이 축복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 이제 사랑으로 채워진 균형 있는 사회발전이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염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노인복지관을 비롯하여 각종 사회단체 등에서 마련한 많은 교육과정에 참여자들이 넘쳐나고 노노케어 봉사활동이 활성화되는 것을 보면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사설

밀어붙인 도시계획조례, 부결은 사필귀정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했다. 에견된 수순이었다. 이미 두 차례의 도민 토론회에서 중산간 마을 주민들과 건설업계가 강한 반발을 했다. 재산권 침해와 형평성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특히 중산간 주민들은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들의 요구를 등한시한 채 개정을 강행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7일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심사하고 부결했다. 부결의 요체는 과도한 재산권 침해와 도민 공감대 형성 미흡이다. 위원회는 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 여부가 난개발 방지라는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또 동일 용도지역임에도 공공수도 연결 여부나 표고에 따라 건축물 용도와 규모를 다르게 제한한 것도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특히 표고 300m 이상 지역 추가 규제는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일탈행위로 규정했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부결은

에견된 수순이었다. 이미 두 차례의 도민 토론회에서 중산간 마을 주민들과 건설업계가 강한 반발을 했다. 재산권 침해와 형평성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특히 중산간 주민들은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들의 요구를 등한시한 채 개정을 강행했다.

좋은 정책이라도 도민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 실효성이 없다. 도 당국은 반발 주체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다시 수렴해야 한다. 난개발과 지하수 오염방지라는 공익도 중요하지만 사유재산권도 보호해야 한다. 과도한 규제가 지역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새겨들어야 한다. 모두가 만족하는 최선안은 도출하기 어렵다.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집중을 찾아 보편하는 일탈행위로 규정했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부결은

농·축·수협, 산림조합장 당선인들의 책무

제주지역 32개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이 선출됐다. 8일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통해 제주에서는 23개 농·축협과 7개 수협, 2개 산림조합에서 조합장이 선출됐다. 후보자의 단독 출마로 애월농협, 제주시농협, 하귀농협, 남원농협, 서귀포수협, 제주시산림조합, 서귀포시산림조합 등 7곳은 투표 없이 당선 확정됐다.

권한이 주어지지만 그들 앞에 놓인 현실은 녹록치 않다. 1차 산업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최근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의 압력이 이어지면서 농어업인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농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조합장은 조합의 최고경영자(CEO)로 4년간 조합의 대표권을 비롯 업무 집행권과 직원 인사를 행하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조합의 경제·신용·지도 사업 업무 등을 총괄하고 승진·채용 등 직원에 대한 인사권과 예산 사용권을 관장하는 것이다. 아울러 선거를 통해 당선되면 지역 내 기관단체장으로 분류돼 나

따라서 당선된 조합장은 풀뿌리 지역경제의 수장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갈수록 열악해지는 경영여건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은 물론 힘겹게 수확한 농수축산물을 제값에 받고 팔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 조합원들을 향한 무한봉사와 더불어 침체된 농어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4년이 제주 1차 산업의 성패를 가늠할 것 이라는 책임감도 가져야 한다.

편집국 25시

제목으로 들통난 정치적 의도



이상민 행정사회부 차장 hasm@ihalla.com

기사 제목은 취재 과정에서 확인한 가장 중요한 사실이나 기사가 가장 주장하고 싶은 것을 담아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선택적 뉴스 소비 경향이 갈수록 뚜렷해지는 언론 환경에서 제목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된다. 독자는 제목을 보고 기사의 의도를 미리 알아채 읽을지 말지를 결정한다. 보도자료도 마찬가지다. 보도자료 홍수 속에서 기자들은 자료에 달린 제목을 보고 기사 가치를 미리 짐작한다.

일성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며 "김일성 정권에 한때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유가족과 희생자에게 용서를 받는다"고 했다. 유족들은 격하게 반발했다. 유족들은 김일성 지시실이 역사적 사실과 다르게 색깔론을 부추긴다며 다시 '사과' 하라고 요구했지만 태 의원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사과 방법을 '진절' 하게 알려 줘도 뜻을 굽히지 않는다는 건 애초부터 용서를 구할 마음이 없었다는 것과 다름없다.

태 의원은 정치적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주장에 대해 "부디 순수하게 받아달라"며 "용서 구한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면 이야말로 4·3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어처구니없다. 태 의원이 배포한 보도 자료 제목은 '4·3 사건, 김일성 지시에 의해 촉발'이다. 제목만으로도 이미 목적 의식을 선명히 드러내지 않았는가. 하물며 이 세상에 정치적 의도 없는 정치인의 주장도 있던 말인가. 궤변도 이런 궤변이 없다.

뉴스-in

"경력단절 여성 취업과 단절예방 지원"

오 지사, 제주여성센터 방문

"여성 존중받는 일터로"

○...오영훈 제주지사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를 방문해 "여성의 역할 덕분에 한 분의 여성이라도 더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이 무척 소중하다"며 여성 일자리 확대에 힘쓰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8일 제주도교육청 각 부서를 방문해 2023년 세계 여성의 날의 의미를 새기는 행사를 실시.

오 지사는 이날 "국민이 일하고 싶을 때 일하게 해주는 것이 최상의 복지"라며 "더 좋은 일 자리를 통해 도민들이 더 높은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

115주년을 맞은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이날 여성 직원들을 격려하고 꽃바구니를 선물한 김 교육감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존중받는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꽃바구니 선물의 의미가 학교 현장 지원에 노고를 다하는 여성 직원뿐 아니라 모든 직원들에게 격려와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카페 음료 창업과정에서 실습교육에 참여해 "제주도정은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지원과 더불어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고대리기자

도교육청에서는 그동안 세계 여성의 날에 맞춰 교육감이 여성 직원들에게 장미꽃을 나눠주거나 영화 관람권을 선물하는 등 기념 행사를 진행. 진선희기자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남양홍씨 동회(향년 69세) 상지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니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3년 3월 9일
남편 양동욱
딸 양성환
사위 이순환

토지임대
제주시 월성로4길 76-2 (해대동산/공향방면 우측)
대지 4,123㎡(1,247평)
건물 2동 / 2층 근린생활시설
현재 렌터카 차고지
임대료 상담후 결정
744-2002, 010-2113-2112

묘지후손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를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에내 가능합니다."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 전문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연구소
신소장 ☎010-7305-7819 제주특별자치도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향운철학관
향운거사 이방백
사주, 관상 2가지 방법을 종합해서 운명을 감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자기운명이 현재, 미래에 어떠한 운명인가를 알아서 살아가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사회에 나가서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성공할 것인지 대학은 문과를 가야할 것인지 이공계열을 가야할 것인지 미래의 진로를 선택해야 할 중3, 고1, 2년생 환영합니다.
하루에 오전, 오후해서 2명만 전화 예약 받습니다.
복비 : 50,000원
전화 010-7301-7737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기간 내에 신고자 없을 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가수
2. 개장사유 : 토지정리 및 재산권행사
3. 개장 후 안치장소 및 봉안기간
4. 개장방법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6. 신고 및 문의처
7. 구비서류 : 분묘의 위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계도, 지적도, 지적부등본, 축부 등)
8. 기타사항 : 개장시 추가로 발원된 환경요소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함.
상기와 같이 분묘 개장 공고를 합니다.
2023년 3월 9일
위 공고인 : 토지주 고필수

택지, 상가 긴급매각
1) 성산포 500평 현재 70% 공사중 해안도로 접함
2) 송당리 1,000평 (분할 가능) 관리지역 (평당 750,000원) 관광농원 입구, 송당리 마을, 2차선 접함
3) 종달리 6,000평 (분할 가능) 관리지역 (평당 1,600,000원) 우도와 일출봉사이가 바닷가
4) 시흥리 5,000평 (분할 가능) 잡종지, 일주도로 접함
5) 성산포 12,000평(분할 가능) 해안도로 접함
010-4820-4823 (부동산중개사 아님)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신에 이문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분
미국식품의약국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MK약백도라지연구소

차고지/주차장
시의 자기차고지갯기사업
市 지원 90%
2023년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접수 중
자기차고지갯기사업
No.1 시공업체
편리한생활건축설비
010-9908-9200
종합설수리/하자보수

강정동 카페 및 펜션 토지 매각
1 강정 해안도로 접 607평 (카페 A급 토지)
2 강정동 주택지 373평
3 강정 해안도로 뒤 370평 (건축 높이 17m가능)
4 서귀포 이마트 근접 180평 (비다조망 건축가능)
5 월명포구 도로 근접 590평 (상가 및 펜션 건축가능)
6 호근동 일주도로 위 펜션조망 180평 (주택 건축가능)
7 고근산 뒤 5,000평 조경식재 (별장 건축가능)
* 부동산중개사 아님
010-7328-1107, 010-6275-5200